

# 아동의 자아존중감 : 구성영역과 발달\*

## Children's Self-Esteem : Dimensions and Development

김 희 화

Kim, Hee Haw

김 경 연\*\*

Kim, Kyong Yu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explore the dimensions of children's self-esteem and (2) to expla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elf-esteem through a short-term longitudinal approach. 219 children in 1st, 3rd, and 5th grades participated twice once each year over a 2 year period. Factor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Cronbach alpha, pairs t-test, and MANOVA were conducted.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made by present researchers.

The results showed that (1) children's self-esteem consisted of the cognitive-competence self, peer-related self, teacher-related self, family self, negative self, and physically competent self: (2) the 1st and 2nd grade children's self-esteem was higher than that of 3rd-6th grade children and the 3rd grade children's self-esteem changed little until they reached 5th grade, but the 6th grade children's self-esteem decreased.

### I. 문제의 제기

인간의 적응 및 성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어지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관련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의 구성영역과 아동기 동안의 발달적 변화에 대해서 아직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구성개념(construct)으로서의 자아존중감에 관해서 제시되었던 근본적인 쟁점은, 자아존중감이 단일차원적 개념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성된 다면적 개념인가라는 것이었는데 송인섭(1982 : 송인섭, 1989 재인용), Kokenes

(1974), Shavelson, Hubner와 Stanton(1976), Harter(1982) 등이 제시한 경험적 자료들에 의해 후자 즉 다면적 개념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이 더 우세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의 다면성을 수용할 때 당연히 대두되는 의문은 그것이 어떠한 측면 또는 영역으로 구성되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자아존중감의 영역구성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고 특히 국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존중감의 구성영역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의 구성영역을 밝히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 본 논문은 1990학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부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해 단정지을 수 없는 직접적 이유는 관련 연구들의 결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김경연, 1985; Brown, Fulkerson, Furr, Ware & Voigt, 1984)는 연령이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다른 연구들(Piers, Harris, 1964; Long, Henderson & Ziller, 1968; Carpenter & Busse, 1969)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연령효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그 변화가 규칙적인가 불규칙한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연구결과들이 일치한다해도 그 결과를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로 수용하기는 곤란하다. 그 이유는 이들 연구가 횡단적 자료의 분석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상이한 연령층을 동시에 측정하는 횡단적 접근에서는 역사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밝혀진 연령차이가 진정한 발달양상을 반영하는지는 알 수 없으며, 이는 동일 대상을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측정하는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번째 목적은 1년 간격의 단기 종단적 접근을 통해 아동기동안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아존중감의 구성영역

자아의 평가적 측면이라고 간주되는(Damon & Hart, 1982; Mussen, Conger, Kagon & Huston, 1984)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단일 차원적인 개념으로 보다는 다면적인 개념으로 간주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최초의 시사는 초기의 자아 심리학자인 William James의 주장에서 발견된다. James(1890)는 자아를, 지각하는 주체인 "I"와 지각되는 대상

인 "me"로 양분하고 다시 "me"의 구성요소로 물질적 me, 사회적 me, 정신적 me 들을 제시하였다(Wells & Marwell, 1976 재인용). James와 같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의 입장에 속하는 Cooley(1902) 역시 "면경자아(looking-glass self)"라는 개념으로 자아의 다면성을 가정하였다(Wells & Marwell, 1976 재인용). 그에 의하면 자아개념은 개인이 지각한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의 반영체이다. 그런데 개인이 접하는 타인은 여럿이므로 자아개념 또한 다중의 측면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 및 정서적 반응이므로 자아개념이 여러 영역으로 구성된다면 자아존중감 또한 하나 이상의 영역으로 구성될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다면적인 개념임을 입증하고자 한 경험적 연구에서 제시된 자아존중감의 영역들은 그 문항추출 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4학년에서 8학년까지의 공립학교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Coopersmith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인 "Self-Esteem Inventory"(SEI, 1967)를 요인 분석한 Kokenes(1974)는 자아존중감이 8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고 제시하였다. Kokenes(1974)에 의하면 이들 영역은 그 유사성에 따라 "자아관련 영역"(지각된 자아 부적합, 지각된 자아적합, 자아 거부), "부모 가정관련 영역"(부적 부모·가정관련, 정적부모·가정관련), "사회적 자아 및 또래 영역" 및 "학교-학업 영역"(학교-학업 성공, 학교-학업 실패)등 4개 영역으로 묶어진다. 이들 4개 영역은 Coopersmith가 이론적 가능성에 따라 그의 자아존중감 척도에 반영한 영역들인데 Coopersmith 자신은 아동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영역간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보았으므로 총점으로서의 자아존중감수치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Coopersmith의 가정에 강한 의문을 가진 Harter(1982)는 자아평가의 한 측면인 지각된 능력(perceived

competence)을 측정할 때 아동이 영역구분을 하는 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국민학교 3학년 이상의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인지적영역, 사회적영역, 신체적영역 및 일반적 자아가치영역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며 또 이러한 영역구분이 3학년에서 9학년동안 매우 안정적이었다. Shavelson과 동료들(1976)은 Coopersmith의 SEI를 비롯한 다섯 종류의 널리 사용되는 자아존중감 척도들을 문항분석하여 자아존중감이 학문적 영역, 사회적 영역, 정서적 영역, 신체적 영역 등 4개 영역으로 구분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Shavelson과 동료들은 그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든지 자아존중감의 다면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더욱 강조하여 자아존중감의 영역이 상당히 가변적임을 시사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서로 구분되는 영역으로 구성된 다면적 개념으로 간주할 때 제기되는 의문은 아동기와 청년기 또는 성인기의 자아존중감 영역이 동일한가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송인섭(1982)이 제시한 학문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인 학급 자아개념은 성인의 자아영역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의문에 대한 가능한 답은 Montemayor와 Eisen(1977)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Montemayor와 Eisen의 국민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개념변화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기에는 주로 소유, 신체상, 신체적 자아, 자원(resource) 등에 관심을 보이거나 청년기로 갈수록 직업적 역할, 관념적 신념참조, 자아결정감, 통합감, 대인관계양식, 심리적 양식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자아개념의 변화과정을 나타낸다.

위에서 검토한 대부분의 연구가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구성이 이와 유사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자료가 요구된다. 또한 아동기동안의 중요한 사회적 환경으로는 가족 및 학교

환경이 거론되며(Bens, 1985; Cole & Cole, 1989) 학교환경 중 특히 또래와 교사는 아동에게 있어 중요한 타인인데 본 논문에서 참조한 자아존중감 척도(정원식, 1968; Piers & Harris, 1964; Rosenberg, 1965; Coopersmith, 1967)에는 교사관련 항목이 부족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항을 첨가하여 아동기동안의 자아존중감 구성영역을 밝히고자 하였다.

## 2. 자아존중감의 발달

자아존중감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개념이 최초로 출현하는 시기가 언제 쯤 이라고 확실히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대략 3세경에 자기이미지(self-image)가 형성되고 신체적, 인지적 성숙 및 사회적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며 이것이 상당한 확고성과 안정성을 보유한 자아개념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7세 전후인 것으로 믿어진다(박아청, 1983; Bee 1978). 일단 자아개념이 형성되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아개념의 단면들에 대해 평가를 내리게 되므로(Mussen et al, 1984, p. 356) 스스로에 대한 평가적 감정적 태도의 총체인 자아존중감의 출현시기도 7세 전후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다수의 자아존중감 관련 연구를 검토한 O'Malley와 Bachman(1983)의 보고 및 McCarthy와 Hoge(1982)의 197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를 종합할 때 사춘기 이후에 자아존중감수준이 체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아동기 동안의 발달이 어떠한지는 단정지을 수가 없다.

우선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연령차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연령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과(김경연, 1985; Brown et al, 1984)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으로 구

분되고, 다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은 아동기동안 아동의 연령이 증가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감소한다는 주장 (Piers & Harris, 1964; Carpenter & Busse, 1969)과 자아존중감이 연령의 변화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화한다고 보는 주장(Long et al, 1968)으로 나뉜다. Long과 동료들(1968)이 국민학교 1학년에서 6학년아동을 대상으로 측정한 자아존중감 점수는 1, 4, 6학년은 높고 2, 3, 5학년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Piers와 Harris(1964), Carpenter와 Busse(1969)등의 주장과 불일치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연령 변화에 따른 개인내의 발달적 변화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희소하여 아동기동안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가한 아동은 임의 추출한 부산시 소재의 S국민학교 1, 3, 5학년 남녀아동 219명이다. 표본을 임의 추출한 이유는 본 연구가 1년간의 단기종간적 접근법을 채택하였으므로 동일 표본을 추적 측정하는데 학교측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상학교는 임의 추출하였으나 최종 표본은 각 학년에서 두개 학급씩 무작위 추출하는 집락표집법에 의해 선정하여 표본편파를 최소화 하였다.

최초에 추출된 표본 크기는 305명이었고 회수된 질문지는 280부였다. (회수율 91.8%) 1년뒤 전학, 무응답으로 상실된 표본 31명을 제외하고 2, 4, 6학년이 된 249명에게 배부한 질문지는 235부가 회수되었는데(회수율 94.28%)이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사례를 제외한 219명이 최종표본을 구성하였다. 표본의 학년 및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남아의 수 (97)가 여아의 수

<표 1> 대상아동의 학년별·성별 빈도분포 및 백분율

학년	성	빈도(%)
1	여	45 (20.55)
	남	33 (15.07)
3	여	40 (18.26)
	남	31 (14.16)
5	여	37 (16.89)
	남	33 (15.07)

(122)에 비해 적은데 그 이유는 2차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응답불성실에 기인한 누락 사례중 남아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의 구성영역을 탐색키 위한 요인 분석용 질문지를 먼저 구성 하였고,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를 파악하는데는 요인분석 결과에 의거해 조정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용 질문지는 정원식(1968), Coopersmith(1967), Piers & Harris(1964)의 문항 및 Rosenberg(1965)의 문항을 참조로 하여 구성되었다. 이들 척도중 Coopersmith, Piers & Harris의 척도는 아동용 척도이며 정원식과 Rosenberg의 척도는 중학생이상용인데 연구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아동에게 부적절한 문항과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들을 제외시키고 교사관련 문항을 첨가하여 총 87문항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문항에 대해 5개의 응답범주를 설정하여 국민학교 1, 3, 5학년 50명에게 응답케 하여 회수된 43부를 대상으로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분석결과 내적일관성이 높은( $r = .35$ ,  $p < .01$ ) 문항은 28문항으로 나타났다. 28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1차 본조사 대상

에게 응답케 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결과 7문항이 제외되어 21문항이 채택 되었다.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는 이 21문항의 총점으로 검토하였다. 1차 본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내적합치도에 의한 신뢰도를 검토한 결과 21문항척도의 Conbach alpha값은 .89였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 (1) 조사절차

본 연구에서는 문항추출을 위한 1회의 예비조사 와 2회의 본조사가 실시 되었다.

문항추출을 위한 예비조사는 가정관리학과 4학년 학생과 연구자들에 의해 실시되었다. 1학년 아동에게는 직접 문항을 읽어주고 응답하도록 하였고 3, 5학년은 담임교사에게 의뢰하여 교실에서 집단으로 응답케 하였다.

본조사는 1년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조사는 1988년 7월에 4일간 실시되었다. 조사는 담임교사에게 의뢰하여 실시되었는데 3, 5학년은 자유로운 시간에 개별 응답케 하여 회수하였고 1학년은 교실에서 교사가 문항과 응답범주를 읽어준 뒤 응답하도록 하여 회수 하였다. 2차 본조사는 약 1년 뒤인 1989년 6월에 5일동안 실시되었다. 신학기 반편성 자료를 근거로 하여 2, 4, 6학년이 된 표본 아동을 추적하여 교사의 개입없이 아동에게 개별적으로 응답케하여 회수하였다.

#### (2) 자료분석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피어슨 상관계수, 요인분석, Cronbach alpha, pairs t-test, 그리고 다변량 분산분석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 1. 자아존중감의 구성영역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구성영역을 밝히기위해, 1차 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즉 28개 자아존중감문항간의 상관계수 행렬에 기초하여 직각회전인 varimax방법에의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직각회전은 요인분석결과 몇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할때 그리고 요인간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할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부합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취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요인의 고유치가 1.00이상인 요인은 6개로 나타났으며 이들6개요인이 자아존중감 전체 분산의 5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부하량 .45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각 요인에 추출된 문항과 문항별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이때 두개 요인 이상에 요인부하량이 .45이상으로 나타난 문항과 6개의 요인에 대해 어느 요인에 대해서도 요인부하량이 .45이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문항은 자아존중감의 구성영역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2>에 의하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내 항목의 내용에 근거하여 각 요인에 명칭을 부여하고 그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1) 요인 1 : 인지적 능력자아

요인 1의 내용은 유능감, 학습능력 등 학교생활 중에서 학습능력면에서 자신을 평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지적 능력자아”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Harter(1982)가 제시한 “인지적 능력(cognitive competence)”, Kokenes(1974)의 “학교-학업의 성공·실패(school-academic success·failure)” 영역과 유사한 영역으로 간주된다.

#### (2) 요인 2 : 또래관련자아

## IV. 결과 및 논의

〈표 2〉 자아존중감 척도에 관한 요인행렬표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h <sup>2</sup>
10 나는 내 학교 성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60	.12	.05	.05	.11	-.06	.39
6 나는 내 친구보다도 영리하다고 생각한다	.59	.16	.10	.21	.09	.20	.48
8 사람들은 나를 똑똑하다고 한다	.58	.10	.22	.21	.20	.01	.47
9 나는 내머리가 좋다고 생각한다	.57	.13	.07	.13	.04	.05	.37
13 나는 무엇이든지 다 잘 한다.	.56	.07	.08	.18	.04	.31	.46
14 나는 모든 일에 자신이 있다.	.53	.21	.16	.18	.07	.23	.43
7 나는 교과서내용이 쉽다	.46	.15	-.01	.09	-.02	.15	.27
22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22	.69	.15	.26	.04	.12	.62
23 반아이들은 나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21	.65	.34	.05	.22	-.02	.63
24 내 친구들은 나와 노는 것을 즐거워한다	.20	.57	.15	.04	.22	.15	.46
25 나는 친한 친구들이 많다	.10	.46	.30	.11	.17	.21	.40
17 우리집은 행복한 가정이다	-.10	.21	.63	.13	.07	.27	.54
4 나는 잘생겼다(이쁘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28	.17	.47	.10	-.08	-.22	.39
18 나는 부모님과와의 관계가 만족스럽다	.09	.20	.45	.23	.11	.17	.34
28 선생님께서는 내 말을 잘 들어 주신다	.27	.18	.18	.71	.17	.04	.67
27 선생님께서는 나를 좋게 평가하신다	.40	.04	.28	.60	.27	.02	.68
26 선생님께서는 내 능력을 인정하시는것 같다	.34	.29	.29	.56	.07	-.00	.61
20 학교 친구들은 내 말을 잘 들어 주지 않는다	-.06	.20	.06	-.00	.62	.05	.43
2 내 몸은 다른 아이몸보다 이상한것 같다	.03	-.03	.25	.07	.54	.19	.40
5 나는 아무리 어려운 놀이라도 잘한다	.41	.10	-.04	-.04	.02	.53	.47
1 나는 몸이 튼튼하다	.12	.15	.12	.04	.03	.50	.30
3 나는 내 외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52	.20	.48	.10	-.03	-.08	.56
11 나는 내친구보다 성적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25	.05	-.06	.12	.36	.07	.22
12 나는 한꺼번에 많은것을 외울 수 있다	.38	-.02	.17	.09	.08	.26	.26
15 나는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41	.22	.42	.23	.12	.09	.47
16 나는 남들 앞에서 이야기 할때 떨린다	.12	.13	-.02	.11	.40	-.04	.20
19 나의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님께서는 관심을 보인다	.15	.12	.29	.25	.02	.07	.19
21 친구들은 나를 잘 도와준다	.45	.46	.09	.30	.14	.04	.54
고 유 치	8.1	2.0	1.5	1.5	1.3	1.1	5.5
전 체 변 량	28.8	7.3	5.5	5.5	4.6	3.8	55.5

요인 2는 또래로부터의 인정 및 수용여부 등 또래관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또래관련자아”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Harter(1982) “사회적 유능” 영역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요인 3 : 가정적 자아

요인 3은 가정에서 행복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부모에게서 받는 관심도 등 가정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정적 자아”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Kokenes(1974)의 “긍정적·부정적 부모-가정관계(good·poor parent-home relationships)” 영역과 유사한 내용이다. 여기서 다소 이질적인 내용으로 문항4(나는 잘생겼다(이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는 가정적 자아영역에 포함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예쁘다든지 잘생겼다는 평가가 한국가정에서는 외모 평가적 기능보다 칭찬이나 애정 표현적 기능으로 종종 사용됨을 감안 할때 문항4가 아동에게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로 이해되었음을 시사해주므로 문구의 애매함을 보완한 차후 연구에서 해결점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4) 요인 4 : 교사관련자아

요인 4의 항목들은 학교생활에서 또래와 함께 중요타인인 교사의 반응에 대한 아동의 지각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사관련자아”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Harter(1982)나 Kokenes(1974)가 제시한 자아존중의 영역에서는 제외 되었지만 Shavelson과 동료들(1976)이 사회적 자아개념의 한 하위 영역으로 제시한 중요한 타인에 포함된 교사가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임은 경험적연구(김경연, 1987)를 통해 입증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자아존중감의 영역구성을 할때 부모 및 또래와 함께 교사도 아동의 중요한 사회적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요인 5 : 부정적 자아

요인 5의 항목들은 자신이 지각한 자아의 부정적 측면 또는 부적합함에 관한 내용이므로 “부정적 자아”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Kokenes(1974)가 “자신에 대한 외부의 판단과 자기가 내린 판단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해 형성된 영역”이라고 설명했던 “지각된 자아의 부적합성(perceived inadequacy of self)”과 “자아거부(rejection of self)”와 동일한 영역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보면 문항 20(학교친구들은 내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은 또래관련자아영역에 포함될 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적 자아영역과 동일 구조로 제시된것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지각은 자신의 어떤 특성이나 환경적 상황에 의존하기보다 부적절함 그 자체가 중요시됨을 의미한다.

(6) 요인 6 : 신체적 능력자아

요인6의 내용은 건강 및 운동능력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체적 능력자아”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Harter가 제시한 “신체적 유능(physical competence)”과 동일한 영역이다.

2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

연구대상의 학년 및 시간경과에 따른 자아존중감점수의 평균을 제시하면(표 3)과 같다.

〈표 3〉의 학년별 소평균점수는 1·2학년집단이 80.97, 3·4학년집단이 72.31, 5·6학년집단이 72.62로 나타났다.

시간경과에 따른 평균점수는 1학년의 경우 81.77이 2학년때는 80.17점으로 변화하였고, 3학년의 72.99점이 4학년때는 71.63점으로 변화하였으며 5학년은 73.80에서 6학년때는 71.44점으로 변화하였다.

〈표 3〉 자아존중감점수의 평균

		(N=219)	
학 년	시간경과 <sup>1)</sup>	평 균	표준편차
저학년 (1·2학년)	Time 1	81.77	12.84
	Time 2	80.17	11.74
	소평균	80.97	10.14
중학년 (3·4학년)	Time 1	72.99	13.14
	Time 2	71.63	12.09
고학년 (5·6학년)	소평균	72.31	10.16
	Time 1	73.80	10.33
	Time 2	71.44	10.20
	소평균	72.62	9.15

이러한 학년 및 시간경과에 따른 자아존중감점수들로부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학년차 및 안정성에 대한 MANOVA<sup>2)</sup>를 실시 하였다.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자아존중감점수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표

변 량 원	자 승 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집단간				
학년	7269.34	2	3634.67	18.77**
오차	41820.14	216	193.61	
집단내				
시간경과	342.50	1	342.50	4.03*
시간경과×학년	19.35	2	9.68	
오차	18334.47	216	84.88	11

\* p<.05    \*\* p<.001

〈표 4〉의 집단간에서, 학년에 따른 세 집단간 자아존중감점수의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1·2학년집단 아동의 자아존중감점수가 3·4학년 집단 5·6학년집단 아동의 자아존중감점수보다 의의있게 높았다( $F(2,216)=18.77, p<.001$ ).

그리고 집단내에서는(반복 측정된 자아존중감 점수의 차에 대한 분석 결과)시간경과에 따른 주효과만 의의있게 나타났다. 이러한 주효과가 어느 학년에서 나타났는가를 알아본 결과 5학년아동에게서 나타난 것으로서( $t(1,69)=2.12, p<.05$ ) 1학년과 3학년아동의 자아존중감은 1년동안 안정적인 반면 5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불안정하여 6학년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성은 동일집단의 반복측정치에 근거해 구해졌으므로 검사요인에 의한 편파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학년차 및 안정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1학년에서 6학년동안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를 파악하면 국민학교 1,2학년아동의 자아존중감은 3~6학년아동에 비해 의의있게 높으며 3학년이후 5학년까지 자아존중감은 거의 변화하지 않다가 아동기말 6학년때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먼저, 자아존중감 저하현상이 왜 3학년 때 발생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가장 유망한 답은 인지발달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인지의 한 범주인데, 아동의 사회적 인지발달은 인지발달과 평행하여 발달한다는 것이 사회인지연구자들의 주장이다. 본 연구에서 3. 4학년은 8세에서 10세의 연령범위

1) 시간경과는 동일 집단에 자아존중감 검사를 1년 간격을 두고 2회 실시한 시행횟수를 의미한다.

2) 다변량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은 1개이상의 독립변인과 1개 이상의 종속변인들 간의 함수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Randomized Block Designs을 위시해 다양한 경우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SPSS Inc, 1986, p. 477). MANOVA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repeated measures designs 분석은 동일대상의 반복측정치가 종속변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를 가지며 Piaget의 인지단계로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구체적 조작기에는 조작도식을 사용하므로 논리적, 현실적 사고가 가능하며 사회적 인지 면에서는 사회적 비교의 증가로 인해 객관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Hetherington과 Parke(1986, 375)가 대인지각(person perception)능력이 있어 "7세와 8세간의 차이는 8세와 15세간의 차이보다 더 크다"라고 주장한 것이나 Livesley와 Bromley(1973, 147; Hetherington & Parke, 1986에서 재인용)의 "대인지각의 발달에서 여덟번째 해(8세)는 결정적 시기이다"라는 진술은 인지적 발달이 자기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 주는 한 예이다. 즉 국민학교 초기에 비현실적으로 높게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3학년경 자신에 대한 객관적 지각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실적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척도치의 하락으로 나타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화된 자아존중감이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지속되다가 아동기말에 감소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아동이 경험하는 사춘기의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기말경 사춘기에 접어들게 된 아동들은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되어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아동기동안의 자아존중감의 구성영역을 밝히고, 1년간의 단기종단적 접근을 통하여 아동기 동안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를 밝히는 것이었다. 국민학교 1, 3, 5학년아동 219명을 대상으로 1년간격을 두고 2회 질문지 조사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구성영역 : 아동기의 자

아존중감은 "인지적능력자아", "또래관련자아" "가정적 자아" "교사관련자아", "부적합한자아" 및 "신체적 능력자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영역은 Kokenes(1974) 및 Harter(1982)가 제시한 영역들과 유사하였다.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다면적 개념으로 간주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시켜 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의 문화간 보편가능성도 시사해 주는 결과로 간주된다. 그러나, 결과 및 논의 부분에서 밝혔듯이 영역구분을 위해 사용된 척도의 문항이 아동들로부터 직접 추출된 문항이 아닌 기존의 자아존중감척도문항에서 추출되었기 때문에 이외의 영역이 더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요인내에 포함된 이질적 문항에 대해서는 아동과의 면접을 통해 그 실질적 의미 파악이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사관련영역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한 영역이며, 부모와 교사를 동일한 권위인물영역으로 보지 않고 달리 지각함이 파악된 것은 차후 자아존중감척도구성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2)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 : 아동기 동안에 자아존중감은 1, 2학년때는 변화하지 않으나 3학년때 감소하며 5학년까지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다가 6학년때 감소한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감소한다고 한 Piers와 Harris(1964) 및 Carpenter와 Busse(196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현상이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 자아존중감의 연령차이에 대한 논란이 연령차이가 있다는 쪽으로 그리고 그 차이는 어린아동 보다 나이든 아동의 자아존중이 낮다는 쪽으로 결론지워 질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해 주었다고 하겠다.

이상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자아존중감의 구성영역을 밝히기 위해 제시된 문항이 기존의 척도에 근거한 것이었으므로 아동의 자아존중감 원인을

실질적으로 반영치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요인명이 요인부하치에 의존하여 주관적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요인내 항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명칭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표본유지상의 곤란으로 인해 임의 표집을 하였으므로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제한되었다.

## 참 고 문 헌

- 김경연. (1985). 아버지의 자긍심수준, 아동 개인적 변인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자경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143-150.
- 김경연. (1987). 부모의 아동평가·자아존중·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숙. (1978).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아청역. (1983). 현대 발달 심리학. 서울:형설출판사.
- 서봉연. (1974).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송인섭. (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양서원.
- 정원식. (1968). 자아개념검사. 서울:코리안 테스트링 센터.
- 조복희, 박혜원. (1990). 발달심리의 연구법. 서울:교육과학사.
- 차배근. (1990). 사회과학 연구방법. 서울:세영사.
- Bee, H. (1978). The Developing child (2nd ed.). New York: Happer & Raw Pub. Inc.
- Bens, R. M. (1985). Child, Family, community. New York: CBS College Publishing.
- Brown, D., Fulkerson, K., Furr, S., Ware, W., & Vogit, N. (1984). Locus of control, sex role orientation, and self-concept in black and white 3rd and 6th grade male and female leaders in a rural community. Developmental Psychology, 20(4), 717-721.
- Carpenter, T. R., & Busse, T. V. (1969). Development of self-concept Negro and White welfare children. Child Development, 40, 935-939.
- Cole, Michael, & Cole, Sheila R. (1989). The development of children.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Damon, W., & Hart, D. (1982). The development of self-understanding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841-864.
- Gecas, V., Calonico, J. M., & Thomas, D. I. (1974).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 in the child: Mirror theory versus model theor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2, 67-76.
- Gibbons, F. X., & McCoy, S. B. (1991). Self-esteem, similarity, and reactions to active versus passive downward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14-424.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self-esteem.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th ed.). Vol. 4,

- New York: John Wiley & Sons, 275-385.
- Hetherington, E. M., & Parke, R. D. (1986). Child psychology (3rd). New York: McGraw-Hill.
- Kokenes, B. (1974). Grade level differences in factors of self-esteem. Developmental Psychology, 10(6), 954-958.
- Long, B. H., Henderson, E. H., & Ziller, R. C. (1968).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self-concept during middle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13, 201-215.
- McCarthy, J. D., & Hoge, D. R. (1982). Analysis of age effects in longitudinal studies of adolescent self-esteem.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72-279.
- Montemayor, R., & Eisen, M. (1977).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ion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3(4), 314-319.
- Mussen, P. H., Conger, J. J., Kagan, J., & Geiwitz, J. (1979). Psychological development: A life-span approach. New York: Happer & Raw Pub.
- Mussen, P. H., Conger, J. J., Kagan, J., & Huston, A. C. (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6th ed.). New York: Happer & Raw Pub.
- O'Malley, P. M., Bachman, J. G. (1983). Self-esteem: Change and stability between ages 13 and 23. Developmental Psychology, 19(2), 257-268.
- Piers, E. V., & Harris, P. W. (1964). Age and other correlates of self-concept in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5(2), 91-95.
- Robinson, J., Crandall, R., Macdonald, A. P., & Shaver, P. (1983). Measures of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avelson, R. J., Hubner, J. J., & Stanton, G. C. (1976). Self 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3), 407-441.
- SPSS Inc. (1986). SPSS<sup>X</sup> User's Guide(2nd ed.). Chicago: SPSS Inc.
- Styczynski, L. E., & Langlois, J. H. (1977). The effects of familiarity on behavioral stereotypes associated with physical attractivenes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48, 1137-1141.
- Wells, L. E., & Marwell, G. (1976). Self-esteem: it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Sage Library of Social Research, 20, 5-76.